

from *The Battle of Seattle* (New York: Softskull Press, 2001)

시애틀이 시초는 아니었다

조지 카치아피카스

전설 같은 시애틀 전투 이후 몇 달 동안 세계은행(World Bank), IMF 및 세계 3대 무역기구(WTO, NAFTA, APEC) 지도자들은 모두 세계화 반대 운동이 시애틀에서 시작해 MS와 스타벅스의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진 것으로 정의했다. 다름 아닌 세계 경제 기구 최고 권위자라고 할 만한 알란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은행장은 최근 세계 무역 제도에 대한 저항이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지난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세계화 반대 시위 물결이 시애틀에서 시작되었나? 아니다. 그 운동의 시초는 미국 밖에서-베네주엘라, 한국, 인도, 독일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나라-등장했다. 비록 반세계화 운동을 그린스펀처럼 총체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단순히 세계 무역 체제에 대항하는 것으로만 좁게 정의한다 해도 미국에서 기원한 것은 아니다. 사실, 시애틀 시위 그 자체만 해도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약 1천3백 개의 시민 사회 운동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게다가 미국 14개 도시에서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고 파리에서는 2만 여명이 행진을 했으며 마닐라 8만 여명, 서울 3천 명 등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며칠 후 멕시코 시티에서는 시애틀에서 잡힌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다가 98명이 체포되고 고문을 당했다. 아직 미국 활동가들은 그들을 시애틀 싸움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시애틀에서 시위 도중 체포된 사람들과의 연대를 위해 시위를 벌인 멕시코인들은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최선의 일로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집회를 우리 운동의 일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보여준 연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무지는 언론의 침묵을 비롯해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됐다. 운동의 고질적인 분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시애틀의 WTO 반대 시위는 세계의 세계화 반대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시애틀 찬양은 벌써 몇 가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다. 시애틀 이전의 선구자들에 대한 무지,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제 연대를 하는데 실패했으며 전략적 다양성의 효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세계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시위를 벌인 전 세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상징으로서 시애틀은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 특히 세계 체제의 주변부에 있는 나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을 경시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바로 그 체제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 경시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삶이 제3세계사람들의 삶보다 더 가치 있다는 식의 중심주의적 세계 체제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IMF, 세계 은행과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에게 미국적 삶은 베네주엘라나 베트남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가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 시각에서 보면 반 세계화 운동은 시애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역사는 신자유주의 철폐연들이나 그들의 협조자들의 역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역사는 모든 인간은 평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진리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시애틀 싸움의 선풍은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일어난 사파티스타이다. 시애틀의 운동가들에게 끼친 사파티스타의 압도적인 영향은 깃발과 포스터를 들고 마스크를 쓴 수많은 시위대에게는 너무나 분명했다. 사파티스타는 브라질의 무토지 농민운동, 인도의 카르나타카주 농민운동을 포함해 다섯 개 나라를 포괄하고 있는 자유무역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전지구적 행동 (the People's Global Action Against "Free" Trade)의 핵심 역량이 되어 왔다. 이들 조직 외에도, 제3세계 국가에서 일어난 수십 번의 반세계화 봉기는 시애틀 싸움보다 앞서는 것들이다. 세계 기구에 의한 험악한 경제 독점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 중에 1989년에 일어난 베네주엘라 봉기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월 27일부터 며칠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IMF가 처방한 긴축재정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몰려나왔다. 경찰과 군대의 발포로 3백여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다. 2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체포됐다. 그 중요성 때문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베네주엘라

현존하는 세계 체제의 구조적 필요성 때문에 가난한 남미 여러 나라가 해마다 수조 달러의 이자를 부국들의 은행에 갚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1989년 현재 이 지역이 진 전체 빚은 약 420조에 이른다.) 남미 국가들 중에서 베네주엘라는 오랫동안 가장 수준 높은 생활을 유지해 왔다. 의심의 여지없이 엄청난 유전개발 때문이었다. 오랜 사회민주당원인 카를로스 안드레스 레프제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그가 IMF가 부과한 노골적인 긴축재정 정책을 관리하리라고 추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IMF는 경제붕괴(1조5천억 달러에 이르는 악성채무 때문에 이자율 상한선을 올리고 통화를 변동 환율제로 바꿨다)를 피하려고, 카를로스 대통령에게 식료품, 가스, 대중교통요금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2월 16일, 새로운 긴축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2월 27일 실시되었다. 하지만 그런 정책에 평온히 굴복하지 않은 산티타운의 빈민들이 IMF체제를 분쇄하기 위해 일어섰다.

순식간에 이곳 저곳에서 저항이 일어났다. 피트레이의 東산티타운에서는 17명이 무장군과 격전을 벌이다 살해됐다. 정부는 대단히 어울리지 않지만 매우 상대하기 어려운(?) 짱들과 우발적으로 저격병이 된 사람들에게 맞서 기총소사까지 동원했다. 카라카스 남쪽 엘발리 근처에서 이들 저격병들은 주력 군대의 군인 한 명을 죽였고 그 보복으로 최소한 20명이 총을 맞고 죽었다. 마라카이보, 산 크리스토팔, 발렌시아, 푸에르토 라크르주 등 베네주엘라의 16개 도시에서도 빈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항복을 거부하던 3월 3일 군대는 여전히 저격병들을 찾아 다녔다.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9일에는 3백75명이 사망했다. 베네주엘라 언론들은 전국에서 약 600명 이상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외관상으로는 평온이 회복된 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봉기가 다시 등장했다. 4월에는 수만 명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정부의 보조금 철회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5월에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파업이 발생했다. 봉기의 결과로 베네주엘라 사람들은 정치체제를 고치고 휴고 차베스를 권력에서 몰아냈다.

세계경제 지배자들은 베네주엘라 사태를 몰랐다고 변명하기는 어렵다. 그린스펀은 이미 재임 중이었고 세계 재무기구들은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 결국 봉기가 계속되던 3월 9일 미국 정부는 채무상환이 쉽도록 정책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IMF 세계은행과 다른 나라 정부들 그리고 세계 기구들의 협조 아래 미국 정부는 베네주엘라(긴급 차관으로 약 2조원)에 팔

요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시위는 비록 베네주엘라 영토 내의 특수한 문제에서 비롯된 어려움에 대항하며 일어났지만, 그 특징은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애틀에서와 명백히 일치했다. 그들은 세계 체제 관리자들-모든 나라들과 지역을 노예로 만드는 경제독점 세력에 맞서 일어섰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베네주엘라에 강제된 자유시장 모델은 인구의 80%가 슬럼가에 살아야 하는 철저한 빈곤만을 남겼다. 그들은 총체적 곤궁함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차베스에게 기댔다. 1998년 새로 만들어진 차베스의 당이 56%의 투표율로 승리했다.

왜 이들 시애틀의 선구자들이 북미에는 알려지지 않았을까? 미국은 우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자랑스러워한다. 어떻게 그와 같은 통기가 일어나고 세계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공언할 수 있을까? 1985년 도미니카에서 일어난 식량 폭동, 1986년 브라질과 수십 개의 나라들이 기억에서 지워졌다. 1988년 세계 은행과 IMF가 회의를 열었을 때 베를린 시내를 행진한 7만5천명은 무엇인가? 제3세계에서 일찍이 발생한 붕괴에서 강력한 영향을 받은 시위대와 그들의 거대하고 전투적인 태도는 은행가들과 통화 전문가들이 계획도 세우기 전 베를린을 떠나게 만들었다.

반세계화 운동을 미국의 현상으로 서술하려는 시도는 일반적으로 나머지 세계는 미국인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의 또 다른 측면이다. 시애틀을 새로운 세계적 항쟁의 시작점으로 세우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역습이다.

다른 나라에서 운동가들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분열시키는 동안 자본주의 중심지에서 젊은이들의 시위에 주목하는 것은 세계 부국의 우월성을 지속시키는 한 방안이다. 미국의 주도권을 지속시키는 것은 기존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라별로 사회운동을 정리하는 것은 역사학자들과 세계 지도자들이 활동가들에게서 급진적 반체제 정책을 빼앗아 버리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다국적 기업과 그들의 군대화된 인종국가의 상의 하달식 세계화에 대한 우리들의 대안은 대중들의 자율적인 기반 위에 세운 국제주의이다. 세계화 지도자들 모임에 맞선 시위는 그들 정책에 대한 우리의 비판 선언이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기의 국제주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세계화에 대한 지구적인 대안 개발을 돕는 것이다.

에로스와 국제주의

전투적인 반체제 운동이 점점 더 명확해 질수록 전에 어디에선가 설명했던 에로스 효과 현상도 뚜렷해진다.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모범적인 인증 운동의 힘으로 소규모 집단들은 수백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폭발하도록 촉진할 수 있게 된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동을 취할 때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든 그가 아무리 잔인하게 독재를 질질 끌고 있더라도 결국은 힘으로 몰아낼 수 있다. 지난해 세르비아인들이 밀로세비치를 몰아낸 며칠 후 아이보리코스트 인증들도 패배가 확실한 개표를 중단시키려 하자 독재자 로버트 귀를 무너뜨렸다. 대통령 경호원들이 그들을 향해 발포하고 수백 명을 죽였음에도 거리로 물려나온 수만 명의 아이보리 사람들은 해산을 거부했다. 대신 그들은 대통령궁으로 행진을 계속했다. 귀는 도망갔고 피플 파워 (1986년 필리핀에서 유래한 용어)는 또 다른 승리를 얻었다.

뉴욕 타임즈는 알프레도 토호리라는 학생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가 저지른 실수로 벨그라이드에서 있었던 장면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됐다.

오늘날 언론과 지구촌의 특성 때문에 에로스 효과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운동이 한 도시나 지역 또는 한 국가에 제한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멀리 떨어진 지구촌 구석에 고립돼 있지 않다; 행동은 점점 더 동시 다발적으로 연결돼 일어난다. 때로는 한 나라의 사회운동에 그 나라 밖에서 일어난 사건과 운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시애틀의 11·30 시위의 국제적 각인은 자발적으로 조직된 전지구적 저항 물결을 충분히 증명한다. 시애틀의 시위는 세계화 반대 운동을 정의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1·30 시위에 의해 영감을 얻어 2000년 2월 방콕, 4월 워싱턴에 이어 멜버른 포르투갈 다보오 등지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체코 공화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프라하여! 시애틀이여! 투쟁을 계속하라! 이다.(비록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라하의 활동가들은 세계 재무 기구 지도자들의 회의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시애틀에 못지 않은 성공을 거뒀다.)

우리는 자주 국제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왜 세계화 반대 투쟁을 민족주의적으로 정의하는가? 그린스펀, 세계 3대 무역기구, 세계은행은 그들 스스로를 진보적이고 전지구적인 것으로 설명하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동기를 편협한 민족주의로 특징지으려 한다. 우리가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세계화에 반대하는 진보세력인가? 오늘날 베네주엘라라면 그 대답은 맞다 이다. 차베스 정부는 세계화 반대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인 이상 민족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의 행동은 지구적이었다. -- 그는 세계 석유가격을 올리기 위해 OPEC을 창설해 석유산유국에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도록 했다. 콜롬비아에서의 미국의 간섭과, 지역의 석유 전쟁은 베네주엘라 세계화의 미래의 지평을 어렴풋이 보여준다.

미국에서 진보는 민족주의(Nationalism)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옛 부캐년과 다른 민족주의자들과 생각을 같이 해야 하나? 아니다. IMF나 세계은행 WTO와 다른 나라 정부들의 협력해 저지르는 통제에 반대하는 우리들의 국제주의는 풀뿌리, 자주적 정치 참여 그리고 권력과 돈 가진 사람들의 시장이나 정치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인종들간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진보적 세계화 반대운동은 국제적 관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땅에서 이탈시키는 그런 관계에 반대하는 것이고 세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이익을 기업의 것으로 만드는 세계 경제 체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수억의 사람들이 단순히 매일의 생필품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모리스 디스의 남부 빈곤 벨 센터가 출판하는 Intelligence Report는 만 나치와 시애틀의 반 WTO 시위대가 같은 옷에서 떨어져 나온 천 조각이라고 했다. 시애틀 시위가 미국의 역할이 아니라 단지 세계화 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화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주의를 우리의 정책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친미적인 세계화 반대 세력과 우리를 구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한국, 자주성과 사회운동의 변증법

전략, 조직 그리고 신념의 다양성은 자주적인 사회운동의 무기 중에 하나다. 전투적인 거리 집회 등 창조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 자주적 운동은 억압적인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기여했다. 자주적이고 현대와 대우 같은 재벌에 예 목이지 않는 노동조합은 승리했고 남북한 양쪽 정부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980년 광주항쟁 - 2천여 명이 사망한 봉기 - 은 자주적 운동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만 명의 정예 공수부대와 경찰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광주시민들은 군대를 도시 밖으로 몰아내고 거의 일주일 동안 도시를 장악했다. 비록 군대가 다시 도시를 점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지만 광주는 다른 나라 운동을 자극하는 상징이 되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지난 몇 년간, IMF는 만약 한국 정부가 재벌을 깨뜨리지 못하면 낮은 경제 성장을 보일 것 이라고 읊조렸다. 역설적이게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한때 광주항쟁에서의 역할 때문에 군부 독재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경제에 신자유주의를 심는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화와 김대중의 당선은 경이로운 묘기에 가깝고 그것은 거리에 나온 수백만의 보통 사람들의 힘에서 기인한다. 김대중 정부는 벌써 헬리콥터와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의 시위를 해산하는 등 예전 그의 동지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민주화 단체와 자주적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있다. 한국의 마지막 대중 운동 국면의 영웅이었던 김대중이 반대편으로 돌아서면서 그의 변증법적 특성이 드러났다.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에 문호를 열고 한반도에서 반세기에 이르는 전쟁상태를 완화시킨 것은 역사적인 성과다: 최근에 김대중 정부가 노동자 시위를 억압하는 것은 역사의 급속한 국면전환과 내부적인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와 같이 오늘의 활동가는 종종 내일의 권위주의자이다. 시애틀 시장과 경찰청장은 60세대이다. 시장이 베트남 전쟁 기간동안 반전 운동가였다고 자랑하는 동안 경찰청장 노움 스타머는 산디에고 대학의 인도주의적 경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다. 이것은 경찰의 지역 관할 수요에 대응해서 나온 60세대가 만든 지역 경찰 모델의 진수였다. 체제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도자들을 공급하고 있는 60세대들은 유럽에서는 매우 보편화 돼 있다. 독일 녹색당원들은 전투적 운동을 억압하는 것처럼 독일의 새로운 군사 역할을 입법화하는 정부 내 인사들의 한 전형적인 예이다.(왜냐하면 정부의 한 부분으로서 합법적으로 억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60년대 세대들의 분위기가 다른 방식으로 세계화 반대운동을 막는데 이용되고 있다. 힘소통대 된 60세대들이 현재의 운동을 왜소화시키고 있다. 오늘의 운동을 그림자로, 모방으로 시시한 형제들로 간주한다. 시애틀은 매우 중요하지만 60세대와 현재 사이에 있었던 운동은 잊혀졌다. 십여 년 동안의 영광과 위대한 사건들과 개인들이 벌인 사회운동의 지속성과 일상적 활동의 중요성을 알아먹는다. 사회 구조상 60세대들의 신화는 바로 지금 진짜 운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용기를 빼앗고 있다.

마지막으로, 번영기의 대표처럼 말하면서 60세대 활동가 자신들은 전투적인 대중 투쟁을 비판하며 오늘을 방해하고 있다. 60세대 활동가라는 정당성으로 그들은 60세대의 권위를 현재 운동에 투사하고 있다. 60세대 베테랑들은 80년대의 증미의 개입반대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과거의 정당성을 토론에 필요한 정보로 제공하기보다는 특별한 지위를 위한 논쟁의 무기로 사용한다면 창의적인 탐구와 신선한 사고를 잠식하면서 그 효과는 매우 유독할 수 있다.

나에게 시애틀은 세대가 다른 활동가들과의 교류의 장이었다. 시애틀에 시위가 한창이던 때 일전에 만난 적 있는 다니엘 머튼 로즈의 초청으로 그곳에서 이야기 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나의 친구다. 11·30 시위가 끝난 후 갖기로 했던 레프트 뱅크 서점에서의 강연을 계엄령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시위 금지 구역에 감사하며 다니엘과 나는 함께 돌아다니며 친해졌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책에서 함께 작업하기로 결심했다.

2001년 1월 31일 호치민 시에서